

<논평에 대한 답변>

윤 재 근
(대진대학교)

토론자인 최준식교수는 발표자의 '대순진리회와 인존사상'이란 주제발표 논문에서 전체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문제로서, "증산사상의 핵심을 대순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선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비하면 다른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토를 달았다. 다른 것이 부차적일 수 있다면 꼭 다행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른바 "이 문제"가 해결 되면 다른 문제는 논리상 별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를 받기 때문이다.

먼저 '대순사상'이라는 용어는 본 발표자가 논문의 각주에서 밝힌 바 있듯이 대순진리회의 일련의 종교사상을 통칭하는 것이다. 또한 대순진리회는 증산을 교조로 하며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로 봉안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산의 종교사상을 '증산사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증산사상의 대체 용어로서 '대순사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증산의 일련의 종교사상중 어느 하나를 특수하게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이기 보다는 보편의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석가모니의 사상을 우리는 '불교사상'이라고 하고 공·맹의 사유체계를 '유교사상'이라고 하는 바에서 보듯이 증산의 일련의 종교적 사상체계를 대순사상이라고 하자는 시도이다. 다만 "상제께서 구천에 계시자.....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에서처럼 그 구체적 종교행위의 하나를 따서 대순사상이라고 하는 것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 문제는 논문의 내용에서도 밝힌바가 있다.

그 다음으로 '대순(大巡)'이라는 용어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에 있어 "행의(行儀)"라는 용어에 관한 질문인데, 이것은 '행위와 의례 또는 의식'을 합하여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다분히 의도된 용어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종교학과 관련된 모든 용어가 늘 사용되어 왔던 것을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서는 이와 같이 그 의도적 의미를 내포하여 처음 사용했을 것이다. ‘대순’이라는 것이 단순히 최교수의 표현처럼 “증산이 이 땅에 강림하기 위해 지구를 몇바퀴 돌았다”는 단순한 내용일 수는 없다. ‘대순’은 의미론적으로 ‘강세 전의 삼계대순’ — 천하대순(天下大巡) — 과 ‘현세에서의 대순’ — 운회(運回)와 주유(周遊) — 그리고 ‘구천에로의 회귀’ — 화천(化天) —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 인간에 의해 진행되는 단순한 행위의 반복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증산사상의 핵심을 천지공사로 잡지 않고 대순사상이라고 잡았는지”의 의문은 발표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해석되어진 것 같다. 증산의 종교사상이 다른 한국의 민족종교와 뚜렷이 대별되는 바는 ‘천지공사(천지公事)’이고 증산 자신은 그것의 실행자라는 주체적 각성을 한 것이다. 이것은 수운의 ‘시천주(侍天主)’ 관념과 증산의 ‘개벽장(開闢長)’ 관념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천지공사는 대순이라는 종교행위가 선행되는 것이기에 대순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논문에서처럼 잠정적인 정의를 내린 것이며 “천지공사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대순”이라는 식의 논지는 결코 아니다. 발표자의 논리 전개상 표현이 적적치 못하였다면 이해를 구한다.

세번째의 질문으로 “해원사상을 중심으로 증산의 교육사상이 전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신 최교수의 논평에는 본 발표자도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천지공사의 핵심사상은 해원사상”이라는 주장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해원은 상생을 지향하는 것이며 해원상생의 최종 목표는 ‘후천의 선경’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는 광구(匡救)관념의 표현이다. 이러한 것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어야” 이룩될 수 있는 것이기에 신앙적 측면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비교적 논리적인 귀납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해원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며 군생만물(群生萬物)이 모두 포함되는 광범위한 영역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서 해원 상생은 휴머니즘이라는 시각의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네번째의 엘리아데의 이론을 한국 종교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엘리아데 또는 루돌프오토의 성·속에 관한 이론을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종교적 개창자의 탄생설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스러움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순사상에서의 증산의 탄생설화 또한 자연인의 탄생과는 구분

된다고 하는 교리적 해석을 풀어 쓴 것에 불과하며 “성혼”은 증산 자신이 아니라 그의 생모인 권씨부인의 잉태 과정에 대한 해석이다.

다섯번째로 대순사상에서 보이는 본래적 자아에 대해서는 그의 세계관과 아울러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증산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현실관을 취하고 있으며 참혹한 세계, 진멸지경에 처한 세계라는 등의 표현에서 그 단면을 본다. 이런 부정적 현실에서의 인간을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미성숙 상태의 자아로 대입해보면 그것은 ‘재리에 어두워진 인간’ 또는 ‘포원의 인간’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개벽’이라고 하는 세계 변환의 모티브를 통하여 후천선경의 세계로 전변되는 것이며 이러한 종교적 이상세계에 도래하는 인간은 ‘해원의 인간’, ‘성·응을 겸비한 인간’, ‘신·인이 조화된 인간’, ‘상달을 이룩한 인간’의 관념이며 그것이 ‘인존’이라는 표상 체계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후천의 바람직한 또는 지향해야 할 인간 관념이며 본래적 자아라는 표현의 구체적 내용이 될 것이다.